

크레이그 키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14, 마태복음 16-19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마태복음 16-19장 14회입니다.

내 생각엔 랍비들이 앉는 것이 허용된다는 나의 이전 논평 때문에 그들이 이 세션을 위해 나에게 앉을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임을 스가랴에게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한 그 때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모세에 대한 암시와 모세가 토라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던 때를 암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출애굽기 24-16장에서 그들은 시내산에 영광이 있는 6일 동안 6일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글썄요,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암시하는 맥락에서 신명기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여호수아를 반향시키려고 했고, 요단강도 여호수아를 반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모세처럼 되기를 원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런 면에서 모세와 더 비슷하게 행동하십니다. 글쎄, 그가 신명기 18-15장을 암시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의 사역의 일부 측면에서 모세를 불러일으킨 사람이었던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들으라고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다른 이야기,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 때로는 수세기 전 사람들에게 대한 유대인 전설, 또는 제우스처럼 빛나거나 번개로 변한 사람을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모든 청중, 혹은 마태복음의 주요 청중 모두가 친숙했을 이야기는 영광으로 빛나는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변형되셨는데,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세가 본 영광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에서처럼, 심지어 머리말인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모세의 암시가 많이 나오는 부분까지 그것을 반드시 최대한으로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그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그것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 그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너희 믿음이 작음이라. 자, 그것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여러 번 유산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기적을 보았을 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더 강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마태는 이것을 더 직접적인 결과,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결과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가 방금 가셨던 산처럼 산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 심지어 약간의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식했어야 했지만, 아직 그들은 이 시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추가 관찰.

예수님은 불신앙에 관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는 광야 세대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였던 헬라어 번역인 신명기 32장 5절의 언어를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상태는 간질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간질과 영들림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명백히 구별됩니다. 복음서에서 영은 다양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은 구부정한 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쁜 자세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고맙게도. 영혼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단, 그 사람은 거의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영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귀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몸을 구부리는 데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무언가에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도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이 무언가를 말하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영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영과 영 소유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문에서 그렇게 했으므로 17장의 마지막 문단인 성전세에 관한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피터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성전세를 내시나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 유지를 위해 반 세겔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 세계인 디아스포라에서도 그랬고, 본질적으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낭비되었습니다. 성전은 수입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이 금덩굴을 만들었고, 점점 길어져서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 이 금덩굴에 매년 점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왕자는 시골 가구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적하십니다.

왕자는 면제될 것이다. 글썄요, 예수는 성전의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해 15장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실족케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지만, 실족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갇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터가 어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예수님은 어딘가에 가서 물고기를 얻고, 가장 먼저 잡아 올린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동전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동전이 물고기 입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물고기가 동전을 삼킨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점이 기적에 있지 않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같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설령 논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것저것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며, 가능한 한 사회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 18장부터 22장까지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중 몇 가지 세부 사항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각 구절에 그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어 동사 등에 관해 논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종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설교 중 하나이며, 왕국 안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겸손과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겸손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막 새 신자이거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분개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르지만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12-14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십시오.

누군가 넘어지면 당신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구하자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적용이 다릅니다.

맥락이 다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때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도 그것이 전체 문맥의 초점이고 때로는 교회 권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왕국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인이 보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 그는 용서에 대한 초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기도문에 너희가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훨씬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지금 18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합니다.

겸손은 랍비들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를 등지고 올라오게 한 랍비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랍비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고 다른 사람들도 거의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랍반 가말리엘 2세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랍비들을 일반 사람들보다 높였으며,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하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십니다. 그는 한 아이를 모델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명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이며, 그 주제는 그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20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 떼를 쫓는다는 것은 보통 크기의 양 떼가 백 마리인데 만약 목자가 양을 쫓는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잃어버린 양을 쫓는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다른 양들은? 글쎄요, 목자들은 종종 다른 목자들과 어울리곤 했고, 그들의 양 떼는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 관해 언급한 누가복음 2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자들과 다른 목자들은 종종 유대 언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으며, 동물들을 분리해야 할 때 때때로 피리를 부르거나 양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불러서 다른 무리들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다른 양들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오면 여기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러 간다면,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과 우리 모두는 때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십시오. 유대인의 지혜는 좋은 교정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5절의 책망에 대한 유대인의 표준 관행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항상 자신의 문화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는 이미 많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성경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단지 주입된 지혜인 인간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랍비들이 자세히 설명한 유대인의 표준적인 책망 관행입니다.

이는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 전, 그리고 공개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공개적으로 대결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식탁 교제는 복음의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책망합니다.

또한 단순히 분노하여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되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로마가 유대에서 사형을 폐지한 후 바리새인들은 이를 강조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쨌든 사형을 집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도 처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들어와서 피 묻은 칼을 들고 방금 살해된 사람 위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라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 이야기, 수잔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한 두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반대 심문해야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실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신명기 17장과 19장의 성경적 요구 사항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래도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 앞에 가지고 가되 신도들의 모임 앞에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 회당은 법정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 공동체에 물건을 가져오고 장로들은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에서는 로마법이 로마인의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 유대인의 범죄라면, 유대법에 위배되는 범죄라면 로마인들은 그것을 다루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갈리오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으로서 유대 율법을 위반하는 일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로마 세계의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고린도나 에베소 또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공동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유대인의 범죄를 처리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을 수도 있었고, 39대를 다섯 번이나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와 계속 동일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디아스포라에서도, 유대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규율을 받았습니다.

징계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었지만 가장 가혹한 수준은 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저주, 저주와 결합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내가 작정하고 이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였음을 볼 수 있느니라.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은 5장의 개념을 이어받아 여러분의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세탁물을 세상에 내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해결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도 바울은 누군가를 사단에게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대에 처형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파문에 대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사탄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혹한 형태의 파문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 그것은 후기 랍비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수준은 후기 랍비들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폭넓게 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해 두루마리에서 신약성서 이전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해사본에도 다양한 수준의 파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30일 동안 추방당하는 등의 작은 조치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세요. 다릅시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십시오. 여기처럼 그들을 세금 카테터와 이방인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파문의 수준도 다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권징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18절에서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당신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여기서 동사 시제를 얼마나 멀리 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누르면 사람들이 그리스어에서처럼 항상 동사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희가 힘껏 누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이미 매여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땅에서 무엇을 잃더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풀려 있을 것입니다.

즉, 당신이 이러한 절차를 따를 때 당신은 단순히 하늘의 권위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묶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마를 묶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앞서 12장 29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결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인간 악마를 묶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권징, 교회 권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맥락은 교회 권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 배우지 않았다면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묶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 그것은 그들을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잃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Josephus는 사람을 묶고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Barry는 사람을 투옥하고 석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여전히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그로부터 해방시키는 측면에서 교회 권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문맥, 그리고 사실상 전체 장의 문맥은 관계의 문맥입니다.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두 사람만 상대하고 그들에게 네 죄를 고하라. 그들이 듣는다면 그것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 중에 둘이 무슨 일에 뜻을 같이 하면 둘이나 셋이 모이는 곳에는 둘이나 셋이 누구냐? 이들은 앞 문맥에서 방금 언급한 두세 사람, 즉 두세 증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맥의 흐름과 두세 가지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그가 여전히 교회 권징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꽤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두세 명의 증인이 신명기 17장 6절과 7절로 돌아갑니다. 증인들이 먼저 둘로 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권징을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였을 때 딱 한 번,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험담과 비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이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단지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교회 권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모두 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설명하기 전까지는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한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의 절반이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내 역할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와, 이거 대단해요. 거리에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직접 전도하게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과 함께 기도할 다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가 방금 언급한 두세 사람, 두세 명의 증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셰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비슷한 랍비의 말이 있었습니다. 토라를 연구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셰키나가 있고 그들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좌 초반에 그것이 하나님만의 특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그를 마콤, 곧 그 장소, 편재하는 곳이라고 불렀고, 칠십인역과 필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창조물을 채우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23,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신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교회 권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일곱. 그리고 물론 그는 그것이 꽤 관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관대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이나 그것은 평소보다 훨씬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490까지 세고 나서 용서를 그만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점은, 피터가 일곱이라고 말했는데, 요점은, 음, 그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회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 교사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회개가 그다지 깊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는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앞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왕은 18:23에 이곳에서 그의 신하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 비유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언급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의 왕은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의 배경은 유대의 배경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들으셨던 친숙한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환경과 비슷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자가 있었던 초기 기간 동안, 이 통치자는 자신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 세금 농부들과 매년 회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미리 내고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는 뭔가를 잃었다. 그들은 이익을 내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을 왕에게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음, 흥작이 끝난 후 나일강이 충분히 범람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범람하면 나일강 주변의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양은 그다지 많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흉년과 세금 시즌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이집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상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자, 이것이 금 재능이었다면 그것은 큰 과장입니다. 금 달란트, 이만큼 많은 왕국은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 재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세금 수입은 연간 약 800달란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화려한 건물을 많이 지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입은 연간 8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10%도 안 되거든요. 이는 10,000명의 재능 중 8%입니다. 10,000달란트는 농민의 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약 23만년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농민이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농부가 길을 따라 먹을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0,000은 단순히 그리스어로 가장 큰 숫자인 무수한 숫자였습니다.

10,000의 10,000을 말하고 싶지 않다면 더 높은 숫자를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놔두겠습니까? 때때로 비유가 현실주의의 끈을 깨뜨릴 때, 매우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께 빚을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왕은 그와 그의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선생들은 가족을 파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 사람은 유대 왕이 아닙니다. 그는 어쨌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값비싼 종이라면 한 달란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그 정도입니다. 종종 당신은 달란트 당 20명의 노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왕은 여전히 9,999달란트처럼 나올 것입니다. 가족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아마도 그 사람 자신보다 수입이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훌륭한 수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파는 것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수학을 정말 잘했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사람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외칩니다. 오른쪽.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왕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수치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글쎄, 정말 좋았어. 왕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자비에 대한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이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자기 동료 중 중 하나를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도 왕의 종이다. 이 다른 종은 첫 번째 종이 빚진 것의 약 백만분의 일을 빚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는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20달러 정도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는 그 남자의 목을 졸랐다. 우리는 고대 비즈니스 문서를 통해 실제로 채권자가 돈을 지불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돈을 빚진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종은 실제로 이 적은 돈을 갚게 하려고 둘째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글쎄, 그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에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인들은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자비를 베풀었던 이 종은 우리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자비는 더 이상 왕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왕이 속기 쉽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는데 지금 그는 나가서 내가 그를 노예로 팔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종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투옥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갚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잃었고 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나올 거예요? 글쎄요, 그 사람은 돈을 벌 수단이 없어요. 그는 영원히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왕이 사람들을 영원히 고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현실주의의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이 무한하다면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사람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애초에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긍정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소돔을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찌 소돔을 심판하시겠느냐? 소돔은 정말 사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사용하여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으셨다면 소돔은 거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홍수, 홍수의 심판을 봅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생명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말은, 홍수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많은 은사를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 애굽의 번영은 수세기 전에 요셉을 통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볼 때마다 심판은 이 경우처럼 많은 긍휼을 베풀 후에야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거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용서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죄인을 찾으려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관계의 다른 측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언급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논쟁을 정확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과 매우 관련이 있으며, 마태의 청중은 마가의 아마도 주로 이방인 청중보다 조금 더 친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상을 위해 일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십니다(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국은 종종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셨는지 등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호소하십니다.

글쎄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보고 그 해석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학파 중에서 지배적인 학파는 삼마이 학파였습니다. 비록 내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이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배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삼마이파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했는데, 그 구절에는 남자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부정한 이유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남자가 불성실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잠을 자거나, 누드 머리를 하고 공공장소에 나간다면, 그것은 그녀가 함께 자지 못하더라도 함께 자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렐 파는 남자가 아내를 부정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어떤 단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Mishneh Gittin 910). 또한 초기 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이 두 바리새인 학교의 이러한 전통은 아마도 그 기간에 이 두 학교가 말한 내용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작위적인 귀속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 힐렐 학파의 후손인 사람들로부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해석, 하나는 분명히 더 엄격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에게 더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무게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바리새인 그룹에 동의합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호소하심으로써 처음부터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그들의 호소를 우회하셨습니다. 이제 창조 이야기에 호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창조 이야기를 활용하여 솔로몬처럼 왕이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서는 이미 금지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2장도 거기에 적용했습니다. 랍비들은 종종 이브 이야기에 기초하여 여성들을 종속시켰습니다.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는 창조 이야기에 호소하셨고 그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해석학적 접근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구약의 일부 율법은 좋은 것이었고 많은 것을 개선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이상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적 부도덕, 신성 모독, 마술, 안식일 위반, 살인 등의 이유로 사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사형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은 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기준을 높이지만 여러분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규제하는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다처제를 규제했습니다. 여자와 그 여자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이를 허용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문화의 약 절반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매들은 결국 불화를 겪게 되는데, 레이첼과 레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문화에서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클럽 일부다처제에 대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피의 복수자에는 규정이 있어서 아무나 임의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예 제도가 계약된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끝나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규제하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이상, 창조이상을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상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완전한 상호성을 위해 일부일처제 등을 원한다는 이상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혼의 경우, 예수께서는 그것이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상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양보였다. 글쎄요, 랍비들 자신도 때때로 율법에 있는 내용이 인간의 약점에 대한 양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든 아니든, 그들은 토라를 근거로 주장을 하려는 것처럼 그가 토라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라에서 실제보다 더 높은 이상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심은 그들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랍비들을 찾아와서 간청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제 남편이 저와 이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혼 언약처럼 친밀하고 깊은 약속을 통해 부당한 배신에 맞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신실함을 기대할 권리가 있고 그런 관계에서는 그들은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신뢰가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문화에서는 이혼한 아내가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남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립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 문화에서도 이혼의 경우 많은 자녀가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의 문화에서는 종종 과부들이 이용당하고, 남편 쪽 친척들이 재산을 압류하고 과부를 거리로 내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다른 종류의 불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중 성원들이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교회 권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기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무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억압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이 왜곡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튜가 남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갈릴리에서 시행되던 팔레스타인 유대법에서는 실제로는 남편만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혼할 권리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에서 언급된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실한 원인 외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근친상간 결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범위를 좁히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여동생과 결혼했다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때때로 형제 자매가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당신의 이복 여동생에게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에 국한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포르니아는 모든 종류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매우, 매우, 매우 드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카에 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간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르네아 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포르네아(pornea)는 모르카이아(morchaeta) 보다 더 좁은 의미의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모르카이아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용어였다.

거기에는 간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음의 경우 이혼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이혼은 정의상 재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혼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우자의 불성실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예외입니다.

배우자가 불성실하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를 보았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이 파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법에 따라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이런 일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돌아오도록 강요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강제로 머물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중 일부는 문화마다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고한 당사자에게는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용서는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미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부모가 주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의견이나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남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두 번째 결혼이었다면 그녀는 많은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길, 탈출 조항이 없다면,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면, 진행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독신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자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 말은, 침묵만으로는 논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일부 주장은 다른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께서 결혼하셨다면 복음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세레 요한도 아마 그의 아내가 그와 함께 광야에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매우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 교사들은 열매를 맺고 명령을 늘리는 것을 고려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남자가 18세나 2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그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그것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랍비가 중간에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위선자야,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 토라 연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한 랍비처럼 어떻게 토라에 대해 그토록 많은 배움을 얻었느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16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일찍 산만함에서 해방됐어요.

많은 랍비들은 결혼을 하면 성적 유혹과 산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이 더 낫고 그는 내시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왕실에서는 내시가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시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왕실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중해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고자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그들을 반남자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탈무드는 누군가가 포경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거세된 남자 내시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다른 문화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고자로 만들지 않도록 그 규칙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거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기관 없이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고자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를 내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Origin은 앞서 언급한 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는 요점을 집으로 전달하는 그래픽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매우 생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왕국을 위해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산헤드린 성원이 되기 위해 결혼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산헤드린의 회원이 아니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신자가 되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헤드린 성원임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인용된 사도행전 26장 10절은 고대 자료에서 자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가 그 결정을 승인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것은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장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을 치는 동안 스테반은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승인한다는 의미에서 조약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족에 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천국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왕국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워합니다. 마치 20장과 31절에서 소경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중들이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더 중요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는 게하시가 수넬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밀어내려고 했던 열왕기하 4장 27절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를 내버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의 목적은 가서 사두개인들을 전복시키거나 로마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의 목적은 몇몇 어린이들을 위해 들러주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눈먼 구걸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꽤 쉬울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낮은 자들과 상한 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마태복음 16-19장 14회입니다.